

申光河 기행시의 몇 가지 국면

이 은 주*

< 目 次 >

I. 서론	
II. 생애와 기행시권	2. 「서유록」: 공간에 남은 자취의 발견
III. 기행시권의 몇 가지 국면	
1. 「북유록」과 「백두록」: 지역민의 현실 문제	3. 「사군록」: 산수의 기상
	IV. 결론

<국문 초록>

이 글은 신광하의 기행시에 나타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본 것이다.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던 만큼 신광하는 여행으로 유명하고, 그의 시문 역시 주로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다만 그동안 신광하의 기행시에서 주목된 점은 주로 백성의 피폐한 삶을 고발하고 현실비판적인 서사시 창작의 맥락이었고, 논의대상은 주로 「북유록」과 「백두록」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신광하의 기행시권은 단일하지 않고 「사군록」, 「서유록」 등 다양한 관심사와 성격을 보여주는 시들이 많다. 이 글의 목표는 신광하의 기행시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광하가 말형 신광수에게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북유록」과 「백두록」에 수록된 시는 주로 함경도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그 참상을 보여주는 데에 있지만, 여타의 시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 inhara@snu.ac.kr

을 그리고 있다. 신광하는 이 일대를 다닌 뒤에 관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을 정도로 관의 수탈과 백성의 고통, 임금의 은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서유록』은 평양을 유람한 일반적인 시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떠난 신광수의 흔적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때로는 신광수의 시가 남아있는 곳에서 감회를 느끼며, 때로는 신광수의 예전 시를 염두에 두고 시를 짓고 있으며 때로는 신광수가 평양에서 지었던 시를 환기시키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 『사군록』의 경우에는 인문 경관 보다는 기이한 장관을 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신광하의 기행시는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평생 여행에 몰두했던 신광하가 가지는 개성일 것이다.

【주제어】 申光河, 기행시, 北遊錄, 白頭錄, 西遊錄, 四郡錄

I. 서론

申光河(1729~1796, 자 文初, 호 震澤, 본관 高靈)는 1783년도에 함경도 관찰사인 徐有寧에게 공문을 보내 자신이 유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몇 개월만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유람을 좋아하여 국내 유명 산천을 유람한 것이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이며”, “평생에 유람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혹서와 맞서며 홍수도 무릅쓰고 험한 길 편한 길을 가리지 않고 수천 리를 달려왔다”고¹⁾ 표현했다.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듯이 백두산과 四郡 등 여러 지역에 대한 기행록을 남긴 신광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여행’은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신광하의 작품 세계를

1) 申光河, 「上徐方伯有寧書」, 『震澤文集』 권10. “顧喜游, 游國中名山川, 殆十八九.”, “其平生所願游, 抗極暑犯潦水, 不擇險易, 走數千里者.” 이하 산문 번역은 박우훈이 번역한 『진택 신광하의 산문』(서천문화원, 2013)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조명해 왔다. 90년대에 「四郡紀行」과 「東遊紀行」, 「北遊錄」, 「白頭錄」 등 기행록에 착안하여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고²⁾ 국경 지역의 특수성을 비롯하여 지역민이 겪는 현실 문제에 대해 보인 관심이 주로 지적되었다. 신광하는 「城市全圖詩」의 맥락에서도 언급되었지만³⁾ 그래도 신광하의 문학은 주로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행록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논점이 문학적 통속화로 확대되는 등 연구성과가 본격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신광하의 기행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북유록」과 「백두록」을 중심으로 북관 백성의 괴로움, 현실 문제 비판을 그 핵심 내용으로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성과가 곧바로 신광하의 기행시 전반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신광하는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그가 여행을 하면서 지은 시가 언제나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사군기행」이나 「동유기행」처럼 자연 경관에 대해 경탄하거나 이곳과 관련된 인물에 주목하는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 그의 관심사는 단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의 기행시에는 어떤 면들이 담겨 있을까. 또 신광하의 기행시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2) 진재교, 「진택 신광하의 「북유록」과 「백두록」 : 기행시를 통해 표출된 민족정서」, 『한국한문학회연구』 13, 한국한문학회, 1990. ; 이강희, 「진택 신광하 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3) 안대회, 「조선후기 서울지역의 문학과 도시문화사 :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4)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세현, 「진택 신광하 한시의 연구 : 18세기 중 후반 장편고시 창작의 일단」,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구현희, 「진택 신광하의 생애와 문학」,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우훈, 「진택 신광하의 「사군기행」 연구」, 『동아인문학』 20, 동아인문학회, 2011. ; 진재교, 「시인 신광하의 삶과 인간상」, 『문헌과 해석』 61 겨울호, 문헌과해석사, 2012. ; 박우훈, 「진택 신광하의 「동유기행」 연구」,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2014. ; 김동준, 「문학의 통속화, 통속의 문학화 : 雅俗의 교차, 석복 申光洙家 한시에 나타난 ‘俗’의 활용방안」, 『한문학회지』 39, 근역한문학회, 2014. ; 김동준, 「18세기 북방 여행의 배경과 신광하의 백두산 기행」, 『이화어문논집』 32, 이화어문학회, 2014.

성격을 정립할 수 있을까. 본고의 목표는 신광하의 기행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국면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규명해보는 데에 있다.

이와 함께 형 신광수의 영향도 염두에 두었다. 목만중이 신광하를 위해 쓴 만사에서 “근래에 문원이 열려 풀이 무성하지만, 최고는 형제들이 대단한 군의 집안(近來文苑開榛莽, 最是君家盛棣棠.)”이라고 한 것처럼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는 형제들이 모두 文名이 있는 집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신광수의 시명이 높았던 만큼 신광하를 바라볼 때에는 신광수의 동생이라는 점을 특기하곤 했다. 또 신광하의 시의 내용과 관심사에서 신광수와 유사해서 비교해 볼 만한 대목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여 신광하 기행시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생애와 기행시권

신광하의 문집은 현재 한국한문학회에서 申光洙, 申光淵, 申光河, 芙蓉堂 申氏의 문집을 편한 『崇文聯芳集』 속에 수록된 『震澤文集』과 한국문집편찬위원회에서 한국역대문집총서시리즈로 편한 『震澤先生文集』이 전한다. 다만 한국문집편찬위원회의 『진택선생문집』은 『송문연방집』의 『진택문집』을 영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택문집』이 현전하는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집은 그동안 가문에 전해오던 手藁本을 1975년에 편집과 해제를 맡은 이가원이 완성한 것이므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집은 家藏本 원본이 아니다.

신광하의 생질 尹持誨가 쓴 발문에 따르면, 윤지회는 당시 신광수의 넷째 아들인 大鹵 申奭相에게서 거의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원고를⁵⁾ 받아

5) 李羽慶의 「祭文」에 이 원고가 어떤 상태인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유고는 십중팔구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것도 정서할 수 없고 오래된 것은 순서가 없으며 한번 시를 지은 두세 번 다시 쓰기도 하고 지우고 고쳐서 어지럽게 번진 것도 있고 시만 있고 제목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우경은 이 글에서 “군의

서 편집하고 필사하여 정리했다고 하면서 “모두 약간 권(摠若干卷)”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가원은 해제에서 “이제 尹氏의 手藁本에 校勘과 補遺를 더하고, 또 당시 諸家の 文字를 널리 蒐輯하여 附錄을 纂述하고 拙著의 「序」를 追加하여 景刊”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 추가된 부분인 ‘서문’과 ‘부록’ 중에서 ‘부록’은 권12에 해당하고 「祭文」, 「輓詞」, 「家狀」, 「年記畧抄」, 「跋」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희가 정리하여 집안에 전해지던 소장본이 현재 전하는 12권과 같은 모습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승문연방집』에 수록된 문집 중에서 신광수의 『석북집』만 1906년에 간행한 목활자본 위에 교정사항을 가필로 부기했을 뿐 그의 나머지 문집은 가장본을 이가원이 다시 필사하면서 가장본과 자신이 덧붙인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⁶⁾ 관련자료가 더 발굴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유일본으로 전하는 문집의 현전 상황상 원래 원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신광하의 생애는 조카 申夔相이 쓴 「家狀」과 從七代孫 申完植이 쓴 「年記畧抄」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 1729년 7월 4일 한산 승문동에서 태어났고 28세인 1756년(영조 32)에 사마시에 급제했다. 다만 신기상의 「가장」에는 “영조 병자년 사마시에 1등 3인으로 급제하였다(英廟丙子, 中式年司馬試一等三人.)”고 했고 신완식의 글에도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있으나 『사마방목』에 따르면 1756년(영조 32) 식년시에서 진사 2등 5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유했던 인물은 彝甫 李秉延, 艮翁 李獻慶, 海左 丁範祖, 餘窩 陸萬中, 樊巖 蔡濟恭으로, 신광하의 교유 관계는 만형 신광수의 교유범위와 일치하며 그 외에 槎川 李秉淵의 칭찬을 얻었고 耳溪 洪良浩와는 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신광하 형제들의 교유범위는 남인 문단의 주요 인물들을 거의 망라할 정도여서 선행연구에서는 “석북가 사람들은 관직

이른바 『潤響』 1책”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책에서 찾았다고 하는데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未詳이다.

6) 『승문연방집』에 실려 있는 『震澤文集』, 『騎鹿樵吟』, 『芙蓉詩選文集』, 『石北文集』의 부분 가필은 동일한 글씨체이다.

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남인 문단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대표적인 집안으로 부상⁷⁾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7) 이와 함께 신광수와 거의 겹치는 신광하의 교유관계에 대해서 “여와 목만중, 간옹 이현경, 해좌 정범조, 그리고 진택을 사대가(四大家)로 언급하고 있다. 당시에는 신광수와 채제공, 정범조, 목만중, 이현경의 남인 대가 다섯 명을 오봉산(五鳳山)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4대가에 석복과 번암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들보다 윗길로 대접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⁸⁾ 다만 이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들 중에서 신광수(1712년생)가 가장 연장자인데 생년으로만 보면 이현경(1719), 채제공(1720), 정범조(1723), 목만중(1727), 신광하(1729) 순이라서 이현경이 채제공보다 연장자이다. 이렇게 보면 한 살 어린 채제공이 과연 이현경의 윗길로 여겨졌을까. 한편 신광수의 맏아들 申禹相은 1730년생이라 작은아버지 신광하보다 한 살 어린 정도인데, 신우상의 문집 『懶雲集』에도 정범조, 목만중과 교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신광하가 벼슬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57세인 1785년(정조 9)이었다. 음직을 통해 全州 肇慶廟 참봉이 되었고 司饗院의 奉事, 義禁府 都事가 되었으나 죄수를 조사할 때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파직되었다. 그 후 1786년(정조 10) 채제공이 불러 文孝世子 橫宮都監의 郎廳이 되었고 刑曹佐郎, 內資寺 主簿, 工曹의 山澤司를 거쳐 1790년(정조 14)에 강원도 인제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신광하는 1791년 정조가 親試를 열었을 때 발탁되면서 벼슬길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63세 때인 1791년(정조 15)에 「城市全圖」로 초시에서 장원을 하고 이어 고시 「獻三千年結子蟠桃五枚」와 「流霞亭行」으로 둘 다 장원에 뽑힌 뒤에 特恩을 입어 사간원 정원에 올라 벼슬이 승정원 우승지에 올랐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7) 안대회, 「석복가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61, 문헌과해석사, 2012.

8) 안대회, 위의 글.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기상의 「가장」에서는 서두를 “나이든 음관으로 임금이 친림하시는 세 번의 과거에서 그때마다 장편율사와 고시로 우뚝하게 장원을 차지한 사람으로 고 승지 신광수의 동생이라고 한다(有以老蔭官，膺選於臨軒工令之課三試，輒以長律與古詩，裒然於榜首者曰：故承旨臣申光洙弟也.)”로⁹⁾ 시작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1791년(정조 15) 12월 22일에 科擧와 관계된 試題가 아니면 중시하지 않는 유생들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表에서 장원한 申龜朝, 賦에서 장원한 蔡弘遠, 古詩에 두 번 上을 받은 申光河에게 모두 특별히 대과 급제를 내리도록 하라는 정조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과¹⁰⁾ 신광하가 1792년 윤4월 17일 대궐에서 수직하는 문신들에게 應製詩를 명했을 때 1등을 차지해서 승진했다는 내용이다.¹¹⁾

이가원의 해제에서는 “六十三歲 辛亥의 課製에 應試하여 처음에는 「城市全圖」로써 兪擢되어 御題·御考에 『有聲畫』三字의 題評이 있었고, 「獻三千年結子蟠桃五枚」로써 再試하여 역시 御考 及第壯元의 榮譽를 얻었고, 다음 해에 「流霞亭行」으로써 三試하여 역시 御考 壯元에 合格했다고¹²⁾ 설명하면서 「가장」과 「연기약초」에서 언급되지 않은 「流霞亭行」에 대해 명시했는데 이는 『진택문집』에 수록된 시편에서 확인된다. 『진택문집』 권9에는 이 때 신광하가 지은 시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御題는 각각 「彤庭所分帛，本自寒女出」, 「城市全圖」, 「獻三千年結子蟠桃五枚」, 「流霞亭行」이었다. 두보의 시구 “대궐에서 나눠 준 비단 옷감은, 본디 가난한 아낙네에게서 나온 것이네(彤庭所分帛，本自寒女出)”에서 출제된 이 시제 아래에는 “初試 壯元으로, 집에서 지어 올렸다. 신해년(初試壯元，在家製進 辛亥)”, 「성시전도」 아래에는 “초시 장원으로 주상께서 친림하신 과거

9) 申夔相, 「家狀」, 『震澤文集』 권12. 「가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특은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조에게 체제공이 몇 차례 신광하의 시를 거론한 공이 크다.

10) 『정조실록』 1791년(정조 15) 12월 22일 기사.

11) 『정조실록』 1792년(정조 16) 윤4월 17일 기사.

12) 이가원, 「『송문연방집』 해제」, 『송문연방집』, 탐구당, 1975.

에서 직접 보시고 ‘소리 나는 그림’이라는 세 글자를 써주셨다.(初試壯元. 親試御考書下‘有聲畫’三字.) 「헌삼천년결자반도오매」에는 “춘당대 재시인 주상이 친림하신 과거에서 직접 보시고 특별히 장원급제를 하사하셨다.(春塘臺再試親試御考, 特賜及第壯元)”, 「유하정행」에는 “세번째 시험 장원으로, 승진시키라는 전교가 있었다. 임자년(三試壯元. 陞敍傳教. 壬子)”이라는 세주가 각각 붙어 있다. 정리하자면 1791년 초시 때 쓴 시는 「彤庭所分帛, 本自寒女出」, 「城市全圖」, 재시 때 쓴 시는 「獻三千年結子蟠桃五枚」, 1792년 삼시 때 쓴 시는 「流霞亭行」이다.

「연기약초」와 「가장」을 종합하면 신광하는 응제시를 지은 뒤에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장령을 거쳐 1793(정조 17)에 승정원 우승지에 제수되었고 1794년(정조 18)에 工曹參議가 되었다가 다시 僉知中樞府事로 옮겨갔다. 1795년(정조 19)에는 左承旨兼帶藥院副提舉가 되었다가 江都의 經歷으로 轉遷되었다가 파직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휴직을 청하고 호서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짙은 憲東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산에 갔다가 6월 16일 나라의 경사를 맞아 하례하는 대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고된 일정으로 병이 났고 6월 30일에 성 서쪽 白橋의 우거하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연기약초」에서는 좌승지겸대약원부제조가 된 일이 特恩을 입은 것이라고 특기했고 「가장」에서는 문신의 하대부 품계로 강화도 경력에 임명된 일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일인가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승정원 승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 정조의 親試 이후 승정원에 배속된 것에 대한 평가하면서 신기상은 이를 “임금이 공을 대해서는 근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승정원의 일이 밤낮으로 바빠 오랫동안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잠깐 근무하고 곧 내보내어 한가한 기관으로 옮겨 주었다.”고 이해한 반면, 내중 李羽慶은 제문에서 “승정원에 나아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충언을 올려 치세에도 근심하고 밝은 임금에 대해서도 위태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언관의 자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체임 당했기에 결국 한 마디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임금의 전례

없는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 이것이 군이 한밤중에 오래도록 탄식하는 이유이다.”라고¹³⁾ 썼다. 「가장」과 「제문」에 나타난 서술의 차이는 조카와 내종형의¹⁴⁾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려에 대한 감사함과 갑작스러운 체임에 따른 아쉬움이 교차하는 신광하의 내면을 보다 잘 읽어낸 것이 이우경의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된 「가장」에서 “고 승지 신광수의 동생”라는 구절도 주목할 만하다. 승정원의 승지라는 벼슬은 신광하가 만형인 신광수와 접점을 가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신광하처럼 신광수도 61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기로과의 장원으로 선발되면서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설움을 풀었고 영조의 특은을 입어 승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광하로서는 승지가 된다는 것은 형 신광수가 이뤘던 가문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진택문집』에는 ‘기행’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여행한 장소를 중심으로 한 시권이 많이 실려 있다. 문집 전체가 12권이고 부록을 제외하면 11권 중 9권이 시이고, 시권은 권1에 「南遊錄」, 권2에 「越中錄」, 「東海錄」, 「四郡錄」, 권4에 「東遊錄」, 권5에 「北遊錄」, 권6에 「白頭錄」, 권8에 「楓岳錄」, 「西遊錄」이 있다. 해당 시권에 부기한 세주를 바탕으로 여행의 시기와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유록」(권1)에는 사마시에 급제한 1756년(28세)에 남부지방을 여행했을 때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세주로 “南遊威鳳金山, 仍爲踰嶺轉至康海而歸”가 있는데 지명으로 확인되는 곳은 김제, 영암, 해남 정도이다. 「월중록」(권2)과 「동해록」(권2)은 만형 신광수가 영월부사로 재직 중이던 1773년(45세)에 영월을 포함,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지은 시를 수록하였으며 죽서루, 경포대, 강릉부, 오대산 등의 지명이 확인된다. 「사군록」(권2)은 따로 「四郡紀行」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시기와 여정을 알 수 있다. 1773년 8월 12일에서 22일까지 절경으로 유명한 제천, 청풍, 단양, 영춘 일대

13) 李羽慶, 「祭文」, 『震澤文集』 권12.

14) 이우경의 생년은 미상이나 제문에서 신광하를 ‘君’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내종형으로 판단된다.

를 여행하면서 지은 시가 수록된 시편이고, 「동유록」(권4)은 1778년(50세)에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북유록」(권5)과 「백두록」(권6)은 1783년(55세)에 조카 신우상이 경성관관에 재직 중일 때 함경도 일대를 유람하면서 백두산에 올랐던 경험을 쓴 시편이다. 「풍악록」(권8)은 금오랑에서 과직된 1785년(57세)에 간옹 이현경이 회양부사가 되자 다시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지은 시편이며¹⁵⁾ 평안도 일대를 유람한 「서유록」(권8)은 세주에는 “公因休官，西遊溟江，仍踰秋嶺，遍踏鴨綠，龍灣西塞而歸”라고만 되어 있고 작품에 연도가 나와 있지 않으나 연도별로 편차한 문집의 체제를 고려할 때 1788년(60세)에¹⁶⁾ 유람한 기록으로 보인다.

신광하가 여행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서신에서 신광하는 서유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당시 경성관관이었던 조카 申禹相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건이 힘들면 조카가 만류할 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무더위나 홍수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유람하고 싶기 때문이라고¹⁷⁾ 강조했다. 그는 먼 훗날 사람들이 기억할 사람은 북평사가 아니라 한 필의 말로 백두산에 올랐던 자신일 것이며,¹⁸⁾ 자신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후세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독서하고 연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다.¹⁹⁾ 심지어 벼슬이 없어 가난한 처지이지만 언제든 집을 떠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했다.²⁰⁾ 그런 점에서 신광하는 백성들의 민생에 관심을 갖고 경세의지를 다지는 일반적인 관료문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서 있었고, 이렇게 보면 그의 기행시에 여러 층차

15) 신기상의 「가장」에서는 “문집 속의 이른바 「鞍馬錄」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16) 「서유록」 앞에 수록된 시는 「賀樊巖相公大拜·戊申(1788)」이고 「서유록」 다음인 권9에 처음으로 수록된 시는 「己酉正月五日夜與丁法正·範祖·俞秀五·恒柱·聯句·己酉(1789)」이다.

17) 申光河, 「上徐方伯有寧書」, 『震澤文集』 권10.

18) 申光河, 「與洪注書稚恒(克浩)」, 『震澤文集』 권10.

19) 申光河, 「與李子蘊(礪)書」, 『震澤文集』 권10.

20) 申光河, 「與盧奉事(以漸)書」, 『震澤文集』 권10.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Ⅲ. 기행시의 몇 가지 국면

1. 「북유록」과 「백두록」: 지역민의 현실 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광하는 함경도 일대와 백두산을 여행하기 위해서 당시 경성관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카 신우상을 제쳐 두고 “평소에 교류도 없었던” 함경도관찰사 徐有寧에게 부탁 편지를 보냈다. 상당히 송구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신광하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맹수들이 출몰해서 위험하다는 점, 조카가 경성에 있는데도 관찰사에게 직접 부탁하는 이유는 조카가 만류해서 여행이 무산될 것 같다는 우려, 옛날 유명한 문인들도 令伯의 도움으로 여행을 했다는 미담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광하의 행동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봐도 과한 면이 있다. 특히 여행을 개인의 취향쯤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여행을 위해 물력을 제공해달라고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는 여행에 대한 열망을 이해할 하나의 단서는 이후 서유영에게 보낸 또 다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함경도의 스물 두 고을에서 올해 흉작으로 대단히 고통받고 있다는 민정을 아뢰면서 長坡에 킴을 설치하고 虛項嶺에 길을 트며 海禁을 풀어달라는 해법을 제시했다.²¹⁾ 이런 점에서 보면 신광하에게 여행이란 단순히 “홀가분하여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僊僊有出塵想)”을 넘어 직접 현실과 대면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물론 신광하도 50대 후반에 음식으로 환로에 들어섰고, 관료가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 백성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구제하

21) 申光河, 「上徐方伯書」, 『震澤文集』 권10.

겠다는 의식으로 충만하지는 않았겠지만, 함경도 국경 지방에서 본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료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 점은 이우경이 쓴 제문에서도 발견된다. 이우경은 신광하가 “일찍이 사방에 뜻을 품고 나라 안의 유명한 산과 큰 강을 두루 유람했다. 이들을 거의 다 오르고 유람을 하였는데 단지 여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요충지와 험한 요새 지대, 풀이 나지 않은 넓은 평야 지대의 형편을 반드시 자세히 살피면서 개연히 ‘(여기는) 진을 칠 수 있고, (여기는) 성을 쌓을 수 있으며, (여기는) 둔전을 할 수 있다.’고 하나 하나 지적하였다.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의정부의 관원들과 의논하고자 하였고 가볍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²²⁾ 사람이라고 서술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난 「북유록」과 「백두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편에서는 분명히 현실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백성의 피폐한 삶의 폭로가 담겨져 있다.

三山信太倉	삼산창은 참으로 큰 창고
粟有一萬石	곡식이 일만 석이나 있네.
墻庭不見土	뜰 안에 흙은 보이지 않고
板築皆用木	널판은 모두 나무로 쌓았다.
適見催科時	때마침 세금 독촉할 때
倉監收二麥	창감은 이맥을 거두네.
今秋霜太早	올가을 너무 일찍 서리 내려
高田半不熟	높은 지대 농토라 태반이 익지 않았네.
父老見客啼	노인이 나를 보며 울면서
捐生情崩迫	“죽을 만큼 상황이 암담하다오.
常年穀大賤	평년에는 곡식값이 너무 싸서
一布八九斛	베 한 필이 8, 9섬이었는데
大殺無貧富	큰 흉년에는 빈부도 따로 없어
逝將同溝壑	죽어서 곧 함께 골짜기에 묻히겠지.”

22) 李羽慶, 「祭文」, 『震澤文集』 권12.

官租既有程 관의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다지만
奈此闕蓄積²³⁾ 모아놓은 곡식이 모자란 걸 어찌하나.

이 시는 함경도 茂山의 삼산창을 지나면서 가혹한 세금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²⁴⁾ 이러한 시적 면모는 빈곤에 허덕인 채 여러 곳을 순력한 두보가 지은 「三吏」, 「三別」 시의 전통과 이어져 있다. 아마도 신광하의 시가 자주 두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²⁵⁾ 맥락은 여행을 통해 민은을 탐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현실 비판적인 고시의 창작은 만형 신광수의 시적 면모와도 상당히 흡사하다.²⁶⁾ 신광수 역시 그의 유명한 과체시 「登岳陽樓歎關山戎馬」에서 볼 수 있듯이 두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採薪行」, 「臘月九日行」, 「濟州乞者歌」, 「潛女歌」 등으로 빈곤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採詩’의 맥락에서 조명했다. 위에 인용한 「三山倉」에서 고통을 토로하는 노인의 목소리를 직접 가져오는 등의 형상화 방법들 역시 신광수의 시를 비롯하여 당시 지어진 여러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광하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을 여행했기 때문에 ‘직접 실상을 본다’라는 점이 특기되고 있으나 만약 신광하의 시에서 현실 비판의 어조만을 들면서 이를 신광하의 특색이라고 지적한다면 분명 지나친 해석일 것이다. 당색을 막론하고 환로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인들은 거의 대부분 시에 경제의지를 드러내었다. ‘시인’이라고 표방한 신광수조차도 시와 정치현실의 영역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교화와 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문인이자 (예비)관료인 이들이 여행하는 지역에서 백성들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23) 申光河, 「三山倉」, 『震澤文集』 권6.

24) 진재교(1990), 앞의 글. 시의 현실 비판에 대한 내용은 「북유록」, 「백두록」을 논 의한 선행연구자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25) 李羽慶, 「祭文」, 『震澤文集』 권12.

26) 이은주, 「신광수론: 서생과 빈궁」, 『한국한시작가연구』 17, 한국한시학회, 2013.

따라서 신광하 시에서 현실 비판의 맥락은 그 자체가 독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특수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착목했으며,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를 지었다는 점에서 우위를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예컨대 신광수의 현실비판적인 고시 중에서 「채신행」과 「남월구일행」의 경우 가난한 백성의 문제를 다소 전형적으로 접근했고 「제주결자가」와 「잡녀가」가 제주도민의 구체적인 현실을 담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이들의 가난함을 탄식하거나 임금이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란다는 감상으로 끝맺고 있다.

반면 신광하의 시에서 묘사된 백성들의 현실은 그 지역의 상황과 결부되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西川 지방의 어촌을 지나면서 쓴 「海僑雜詠」은 세 섬의 어촌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현실은 가난하거나 세금에 시달리는 전형성을 벗어나 균역법 실시 이후 부과되는 세금과 결부되어 발생한 문제였고 「栢田行」(권5)은 지방의 특산물물 중양납부하는 공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²⁷⁾ 그런 점에서 신광하가 지적하는 현실 문제는 해법을 생각해 볼 만한 구체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물로 바치는 녹용을 가을 겨울로 藥監이 채 간다는 「閩道」(권6)의 시적 서술이나 사냥꾼으로 전락한 포수의 사정을 다룬 「小柳洞」의 시적 서술은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을 폭로하는 ‘르포르’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최소한 「북유록」, 「백두록」에서 신광하는 백성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료가 선정을 베풀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이고도 추상적인 방안에 기대지 않았다. 이 점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료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제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광하의 현실 비판 시는 구체적이고도 특수한 현실의 한 단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서유록」: 공간에 남은 자취의 발견

27) 진제교(1990), 앞의 글.

1788년(60세)에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를 여행하면서 지은 시편을 묶은 「서유록」은 거의 만형 신광수의 자취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 점에서 특징적인 시권이다. 이 점은 관서지방을 여행하면서 신광수가 지은 시에 차운하는 시를 짓고(「月波樓次石北詩」) 신광수의 「關西樂府」에 나온 관찰사의 풍류 장면을 묘사하며(「練光亭觀巡使火戲」) 기생들에게서 신광수의 「關山戎馬」 시를 듣는(「練光亭聽一枝春唱關山戎馬曲感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광하는 평양을 여행하면서 「북유록」에서처럼 평안도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나 현실의 모순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평양의 여러 누정과 유적을 둘러보았고 의주에 이르기까지 평안도 지역도 유람하였다. 특히 평양에서 一枝春이 부르는 신광수의 「관산용마」를 듣고 감회에 젖기도 하였다. 때문에 「서유록」에 그려진 평양과 평안도는 기생들이 등장하고 누정을 유람하며 노니는 전형적인 유람객의 모습이어서 다소 낭만적인 느낌도 준다. 선행연구에서는 낭만성과 염정성은 신광수 일가가 공유하던 시적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광수의 「관서악부」, 신광하의 「竹西樓夜讌贈諸妓」, 신광수의 아들 申禹相의 「綾城別曲」을 거론하면서 이 ‘풍류’의 속살이 ‘성적 욕망과 시선’이며 “겉은 상층 문화로 포장되었으나 안은 속화된 욕망이” 얽혀 있다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²⁸⁾

그러나 최소한 「서유록」의 시들은 신광하의 낭만적인 성향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죽은 만형 신광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吾兄爲客處	내 형이 여행했던 곳
翰墨至今留	형의 글이 지금도 남아 있네.
野廣含天遠	넓은 들판은 하늘빛처럼 아득하고

28) 김동준, 「문학의 통속화, 통속의 문학화 : 雅俗의 교차, 석복 申光洙家 한시에 나타난 ‘俗’의 활용방안」,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江平映地流	잔잔한 강물은 땅을 비추며 흐른다.
乾坤雙白鬢	하늘과 땅이 모두 하얀데
關塞一高樓	변방에 높은 누각 하나 있네.
莫待中宵月	한밤에 달 뜨길 기다리지 말자.
清光只益愁 ²⁹⁾	맑은 달빛에 수심만 늘테니.

이 시는 월파루에서 신광수의 시를 차운했는데, 제2구를 보면 이 누정에 붙어있는 시판에 신광수의 시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신광수의 시가 회자되었다거나 기생들이 신광수의 시를 노래로 불렀다는 점을 간간히 언급되는 것 이외에도 「서유록」에 수록된 시들은 여러 측면에서 신광수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중 하나는 신광수의 「서관록」 시를 연상시키는 시들이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신광수 시를 차운했다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 외에 동일한 시제인 「長林」은 다음과 같다.

長林與江色	장림과 강빛은
屈曲似無端	끝없이 굽어져 있네.
去入虛明際	환한 빛이 교차하는데
不知煙雨寒	안개에 비 내려 그런 것인가.
故教驅馬緩	일부러 말을 천천히 몰아
因想倚舟看	배에서 보는 상상해보네.
白鷺如相報	백로가 나에게 알려주려는지
沙邊箇箇圓 ³⁰⁾	모랫가에 점점이 둘러있네.

이 시는 장림과 대동강이 굽어 있다는 점으로 시작하여 장림 안에서 대동강을 보면 강물색이 환하게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일부러 말을 천천히 모는데 대동강가에 백로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는 「서관록」에 실려 있는 신광수의 「장림」과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29) 申光河, 「月波樓次石北詩」, 『震澤文集』 권8.

30) 申光河, 「長林」, 『震澤文集』 권8.

長林十里畫難如 장림 십 리는 그리기도 어려울 듯
 樹裏江流曲曲虛 숲 안에서 강은 굽이굽이 비어있네.
 林盡樓臺應自見 장림 끝나면 누대가 자연히 보일테니
 却憐林盡緩驅驢³¹⁾ 숲을 다 지날까 아쉬운 마음에 천천히 나귀를 몬다.

분명히 이 때 신광하의 시 몇 편은 신광수의 「서관록」 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樓夜得明字與淚水黃載之共賦」에서처럼 황재지를 특별히 만났던 것도 신광수가 가난한 서생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던 황재지에게 준 「寄黃載之」를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이와 함께 신광수가 쓴 「關西樂府」와의 유사성도 발견된다. 「練光亭觀巡使火戲」는 「관서악부」 제75수의 불놀이(投火)를 비슷하게 형용했고 「練光亭聽千金歌」에서 “서울에서 이 노래 들었는데, 어떻게 변방까지 이르렀는가(秦中聞此曲, 何得到關河)”는 평양 기생의 노래가 서울의 이세춘에게서 비롯된 시조였다는 「관서악부」 제15수와 비슷하다. 또 신광하는 평양을 둘러본 뒤에 영변, 삭주, 의주, 안주 등을 지나가는데, 이 점도 감사의 평안도 순력 장면에서 열거된 지역들이다.

3. 「사군록」: 산수의 기상

신광하에게 있어 여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인식을 확장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李磻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광하는 멀리 여행하면서 모두 다 보겠다고 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 보고 누정과 성곽, 새롭고 신기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했는데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나서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세상만사가 허망하게 느껴졌다는 소감을 피력했다.³²⁾ 그런 점에서 보면 「사군기행」에서 영월에 대해 서술

31) 申光洙, 「長林」, 『石北集』 권2.

32) 申光河, 「與李子蘊(磻)書」, 『震澤文集』 권10.

하는 다음 이 대목은 다소 이채롭다.

영월은 첩첩 산중에 있는데 이 곳을 고리처럼 에워싸 도는 동강과 서강이 영춘, 단양 등의 사군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산수가 지극히 오묘하고 아름답다. 탁 트여 시원한 행정, 그윽하고 고요한 금강정, 깊숙하고 고아한 자연과 어라, 붉은 언덕과 비취빛 봉우리가 아름다운 동정, 소상, 산음은 진실로 사군의 다른 명승지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산은 모두 높은 산봉우리가 감고 둘러 강도 굽이치고 급하게 흐르는데 구름과 안개가 지게 끼어 항상 서글픈 기분이 들게 한다. 봄과 여름에는 숲이 질푸르고 산 속에는 서글피 우는 새가 많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 새를 ‘자치’라고 부르는데 새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침울하여 상심하게 된다. 게다가 가을 기운에 잎이 떨어져서 하늘은 행하여 산이 더욱 높아 보이고 물이 더욱 빨리 흐를 무렵 북쪽으로 노동을 바라보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처량하고 남쪽으로 청령포를 바라보면 안개 낀 물결이 아득하며 들밥을 내가는 아낙네와 나무꾼이 여섯 신하가 지은 노랫가락을 불러 눈물겹게 한다. 우는 사람들은 지금도 단종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강과 산의 풍도와 기상이 슬퍼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슬퍼지게 하는 것이 있어서이다. 어떤 상황에서 느낀 것을 경물로 표현하니 절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³³⁾

신광하가 보여준 여행에 대한 집념을 보면 남들이 하지 못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그의 열정은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지역, 일상에서 쉽게 대면하지 못하는 기이한 장관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군기행」의 이 대목은 신광하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지역 특유의 분위기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33) 申光河, 「四郡紀行」, 『震澤文集』 권11. “大抵粵在萬山中, 環之以東西兩江, 入于永春丹陽四郡之間, 山水極幽眇佳麗, 如杏亭之爽塏, 錦江亭之幽靜, 紫煙於羅之窈窕, 洞磴瀟上山陰之丹厓翠嶂, 固不下四郡諸勝. 然山皆峭峻回抱, 江亦曲折滾急, 雲靄靄靄, 常多悲哀之氣. 每於春夏之際, 樹林濃綠, 山間多哀鳴鳥. 士人以爲子鳩, 使人不覺黯然傷心. 況當秋氣搖落, 天宇寥廓, 山益峭, 水益急, 北望魯陵, 松柏慘慘, 南望清冷, 煙濤渺渺, 饒婦樵子, 唱六臣所製曲, 令人淚蔌蔌下, 未必其人至今爲上王悲, 江山風氣, 有不期悲而自悲者存, 遇境而感, 觸物而發, 自不得不爾也.”

신광하는 영월의 산수에서 서글픈 인상을 받았지만, 단양의 풍물이 주로 담긴 「사군록」에 나타난 산수의 기상은 장대하고 압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江以龜潭潤	강이 구담봉으로 인해 광활해져
秋沙百頃環	가을 모래 백 이랑을 둘러쌌네.
孤舟來粵客	배 타고 영월로 온 길손
急峽似巫山	가파른 협곡이 무산과 같아라.
鳥道丹楓下	새는 단풍 아래로 다니고
獐啼翠靄間	노루는 푸른 아지랑이 사이에서 운다.
神仙應試我	신선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實欲駐衰顏 ³⁴⁾	진실로 더 이상 늙지않고 싶구나.

이 시는 구담이 얼마나 험준한 곳인가를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산처럼 가파르기 때문에 새도 산 아래로 날 정도이고 노루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린다. 그래서 이곳은 속세와 절연된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느껴진다. 이 시는 이곳에서 더 이상 늙지 않고 신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곳을 선계로 표현하는 것은 ‘三仙岩’, ‘四仙臺’ 같은 지명들이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광하의 이 지역의 산수의 위압감을 여러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다.

客行無前期	나그네 길은 정해진 계획이 없어
夜宿溪上村	밤에 시내 옆 마을에 묵었네.
晨興杖策出	새벽에 일어나 지팡이 짚고 나와 보니
山色猶蒼昏	산색이 마치 푸른 저녁 같았네.
水氣先搖曳	물기에 미끌어져 기우뚱했더니
積石爭崩奔	쌓여 있던 돌이 다투어 무너지네.
邂逅爲白霧	맞닥뜨린 하얀 안개는

34) 申光河, 「龜潭」, 『震澤文集』 권2.

散漫擁石門	흘날리며 석문을 둘러쌌고
林厓自皎然	숲의 절벽도 절로 밝아져
但聞鳥獸喧	새와 짐승의 소리 들린다.
連峰若帽子	모자 같이 이어진 산봉우리엔
暈紅受朝暾	아침 놀이 붉게 비치는데
倏忽無定姿	갑자기 일렁거리다가
岩巒互吐吞	산봉우리에 아침해가 솟았네.
天颺忽吹散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도
餘潤各依痕	남은 윤기에 흔적이 있으니
肅肅舍人岩	고요한 사인암은
彌見體勢尊	그 모습이 높기만 하구나.
高風懷古人	높은 풍격이 고인을 떠올리게 하니
俛仰傷我魂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네.

이 시는 사인암이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새벽에 나와서 해가 뜬다는 사인암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해가 뜨기 전 푸르스름하면서도 밝지만 주변은 안개가 끼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때 아침놀이 붉게 일렁이다가 해가 솟고 사인암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는 ‘사인암’ 그대로 우탁을 떠올리면서 끝나지만, 이 시에서 핵심은 어느 순간 뚜렷하게 드러난 사인암이 위압감있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신광하는 「사군록」에서는 특히 자연의 경물에 주목하는데 이곳이 기이한 절경으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탁, 임재광, 이황 같은 사람들의 흔적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신광하는 이곳에서 선인들의 자취나 인문경관 대신 이곳의 절경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였고 대체로 자연물에 압도되는 느낌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가파른 산세 때문에 인간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여 동물이나 신선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곳, 그 형상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신광하의 문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 기행시편이며, 여행은 신광하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단서이다. 신광하는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차례 여행했는데,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여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만형 신광수가 영월부사로 있을 때, 또는 조카 신우상이 경성관관으로 재직할 때, 교분이 있던 간옹 이현경이 회양부사로 가게 되자 그 일대를 여행할 수 있었고, 때로는 관찰사에게 말을 빌려달라는 청탁을 하면서까지 여행을 하려고 했다.

강렬한 의지로 이루어진 이 여행은 신광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낙방하고 결국 늦은 나이에 음직으로 벼슬길에 들어서기 전부터 여행을 떠났고, 관료가 된 이후에도 여행은 부단히 이어졌다. 전 생애에 걸쳐, 또 상이한 처지에서 여행을 떠났으므로 신광하의 기행시는 단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여행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심사와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때문에 「북유록」과 「백두록」에서는 피폐한 함경도 백성들의 삶을 주목하고 현실 비판적인 시선이나 연민의 감정을 담아내었지만, 그밖의 다른 기행시에서는 다른 관심사가 드러난다. 예컨대 「서유록」이나 「사군록」에서는 백성의 참상이 거의 담겨 있지 않다. 특히 「서유록」에는 평양에 남아있는 신광수의 흔적과 「관서약부」를 연상시키는 여러 대목들이 등장한다. 「사군록」에는 경물의 형상화 문제가 좀더 의미 있게 부각되고 있다. 신광하의 여행시편은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모두를 다루지는 못하고 몇몇 시편으로 논의를 한정지었다.

이렇게 보면 평생 여행에 매진한 신광하는 당시 상황이나 관심사를 기행시편에 녹아냈다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신광하의 여러 기행시편은 단일한 성격으로 논의될 수 없고 다양한 층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행시편과 당시 행적 및 관

심사를 대응시켜 그 성격을 정리하고, 또 이 다양한 측면을 신광하의 개인적 특질과 관련시켜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로 논의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측면에서 신광하의 여러 기행시편의 성격을 정리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參考 文獻〉

- 김동준, 「18세기 북방 여행의 배경과 신광하의 백두산 기행」, 『이화어문논집』 32, 2014.
- 김동준, 「금강산으로 길을 떠나는 신광하」, 『문헌과 해석』 65, 2013.
- 박우훈, 「진택 신광하의 「사군기행」 연구」, 『동아인문학』 20, 동아인문학회, 2011.
- 신광하, 박우훈 옮김, 『진택 신광하의 산문』, 서천문화원, 2013.
- 申光河, 『震澤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9.
- 안대회, 「선인과 범인이 다른 길을 가는 갈림길-과거를 포기하고 금강산으로 떠난 신광하」,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 이은주, 「신광하 작 「죽서루야연증제기」의 존재양상 연구」, 『어문연구』 4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 정우봉, 「신자료를 통해 본 18세기 백두산 여행과 그 의미-신광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0, 2017.
- 진재교, 「시인 신광하의 삶과 인간상」, 『문헌과해석』 61, 문헌과해석사, 2012.
- 진재교, 「진택 신광하의 『북유록』과 『백두록』: 기행시를 통해 표출된 민족정서」,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 한국한문학회 연구회 편,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Abstract

Some aspects of the travel poetries written by Shin Kwangha

Yi Eunju^{*}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aspects of Shin Kwangha's travel. He had traveled all over the country for many years, and he was famous for his trip, and his poems were also studi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ravel. However, in the meantime, Many studies on Shin Kwangha's travel poem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Bugyurok" and "Baekdurok" in the context of the creation of epic poetry, which criticizes the life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many poems that show various interests and personality, such as "Sagunrok". The point of this essay is that Shin Kwangha has various levels of travel and Shin Kwangha is influenced by his older brother Shin Kwangsu.

The poems in "Bugyurok" and "Baekdurok" mainly show the depraved life of the people of Hamkyung Province and their devastation, but they are more specific than other poems. Shin Kwangha has been dealing with concrete issues beyond the typical showing of the grief of the peopl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the grace of the king so much that he tried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bureaucrats after attending this area. "Seoyurok" seems to be a general poem that traveled to Pyongyang, but it is trying to discover the traces of Shin Kwangsu, who left the world. Sometimes he felt relieved in the place where Shing Kwangsu's poetry remains, sometimes making poetry with Shin Kwang-soo's poem in mind, and occasionally making poem that reminds us of Shing Kwangsu's Pyongyang masterpiece. In the case of "Sagunrok", the use of natural products was prominent. In order to emphasize the rugged natural scenery, Shin Kwangha focused the poetic expression on maximizing this point.

【Key words】 Shin Kwangha, the travel poetry, Bugyurok(北遊錄), Baekdurok(白頭錄), Seoyurok(西遊錄), Sagunrok(四郡錄)

투고일 : 5월 23일, 심사완료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A Lecture-only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inhara@snu.ac.kr